

# 家族主義價值 測定을 위한 基礎研究\*

——家族主義尺度 製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sure of Familism: Familism Scale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玉先花

Dept. of Hom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Sun Wha Ok

<目 次>

- |                |            |
|----------------|------------|
| I. 序論          | IV. 研究結果   |
| II. 理論的背景      | V. 結論 및 提言 |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參考文獻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familism.

Construction of this scale is based on a sample of 448 married males and females living in Seoul.

This scale to measure familism is developed by employing a type of item analysis method called correlation analysis. 13 items are select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these a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by analysis based on the criterion of internal consistency.

Validity of this scale is evidenced by logical validation, jury opinion and independent criteria.

Reliability estimate assessed by Cronbach's alpha coefficient is .759.

This scale comprises the following 4 aspects of familism:

- 1) Support for filial piety and ancestor worship.
- 2) Integration of individual activities into family ones for achievement of family objectives.
- 3) Obligation to support individual family members and give them financial assistance when needed, on the assumption that properties such as land, money, etc. belong to family.
- 4) Mutual aid in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and married children and their married siblings.

It is concluded that this familism scale represents an improvement on other measure of familism, but that a number of methodological issues remain to be further studied.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序論

家族生活의 形態는 都市와 農村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變化가 있어 왔지만, 家族의 重要性은 언제나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家族의 特性을 測定하기 위하여 여러 概念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家族主義價値는 우리나라 家族을 理解하기 위한 基本概念으로 빈번히 研究되고 있다. 그러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大부분의 研究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價値觀研究中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測定道具의 개발이 부진한 실태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研究에서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하여 부분적인 규명을 하고는 있으나 個人이 가지고 있는 家族主義價値의 程度를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家族主義價値가 다루어진 연구는 傳統的 家族關係에 대한 價値觀을 측정하는 것으로 家系繼承, 祖上崇拜, 孝 등을 중심으로 한 研究와 配偶者選擇과 結婚觀에 대한 研究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내용을 測定하기 위해서 家族主義에 대한 態度, 家族役割態度, 女性의 地位, 結婚過程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질문을 구성하여 조사한 후에 家族에 대한 價値觀의 傳統性和 近代성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주로 命名尺度로서 測定하면, 個別 間項에 대한 傳統的 價値觀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家族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變數간의 關係를 규명하고자 할 때는 보다 정교한 測定道具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최근의 研究에서는 家族에 대한 價値觀에 포함된 여러 측면을 要因分析한 결과 이들은 서로 다른 要因으로 나타났으며<sup>2)</sup>, 家族主義를 獨立變數로 하고 性役割志向을 從屬變數로 하여 家族의 特性을 研究하는 등 보다 정교한 測定道具에 의해 서만 가능한 研究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家族主義價値가 포함된 價値觀研究의 內容과 研究方法을 간단히 考察하고 問題點을 發見하고자 한다. 그리고 家族關係의 傳

統的特性을 나타내는 價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를 측정하는 尺度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傳統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質問紙보다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를 보다 더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尺度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尺度값을 이용하면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의 傳統性 程度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다른 變數와의 關係를 分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尺度값과 各 變數와의 관계를統計的으로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家族의 役割, 女性의 就業과 地位, 世代간의 關係 등에 대한 態度 또는 結婚滿足度, 役割滿足度 등과 家族主義와의 關係를 규명하는 研究課題에 본 尺度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理論的 背景

본 장에서는 家族主義價値의 概念을 소개하고,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尺度를 구성할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연구된 傳統的 家族價値觀의 內容과 研究方法에 대하여 考察함으로써 本 研究의 理論的 背景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家族主義價値

本 研究에서 구성하는 尺度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家族主義는 個人의 關心이 家族集團의 關心에 從屬되는 社會組織形態이다<sup>3)</sup>. 이러한 家族主義는 傳統農民社會와 現代農民社會에서 社會組織의 支配의 樣式이라고 한다<sup>4)</sup>. 그런데 崔在錫<sup>5)</sup>은 우리나라에서의 家族主義는 다음의 다섯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社會의 構成單位는 집(家)이며, 둘째, 이 집은 어떠한 社會集團보다 重視되며, 셋째, 一個人은 이 집에서 獨立하지 못하고, 넷째, 집안의 人間關係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上下의 身分의 序列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다섯째, 이와 같은 人間은 비단 家族 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家族外의 外部社會에까지 확대되는 社會의 組織形態이다.

이러한 家族主義는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價値

樣式이라고 볼 수 있다.

價值概念은 모든 社會科學에서 核心概念이라고 한다. 이는 社會, 文化, 人性研究에서는 주된 從屬變數이며, 社會的 態度와 行動研究에서는 주된 獨立變數이다<sup>7)</sup>. 그러므로 價值問題는 모든 社會科學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價值要素는 모든 研究의 重要한 領域에서 分析되는 變數이다<sup>8)</sup>. 우리 나라의 先行 家族關係 分野研究에서도 價值研究는 빈번하여 家族主義價值概念이 家族價值觀 또는 家族價值意識으로 測定되어 왔다.

그러나 社會心理學에서는 價值의 理論과 測定보다는 態度의 理論과 測定에 더 많은 關心을 가져 왔다. 이러한 結果는 人間의 價值보다는 態度가 社會의 行動에 더 重要한 構成要素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니라 態度測定方法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보니<sup>9)</sup>. 더욱이 價值와 態度概念 간에는 명백한 구분이 결핍되어 심지어 Campbell은 價值와 態度는 기본적으로 같은 概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는 우리 社會에서 家族價值觀의 核心concept인 家族主義를 價值로 보고, 이와 같은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를 測定하는 尺度를 構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즉 Rokeach가 말하는 價值concept의 特性\*을 지지하면서 測定方法이 보다 더 발달된 態度尺度를 構成하고자 한다.

## 2. 關聯研究考察

本研究에서 關聯研究를 考察하려면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研究의 内容과 研究方法, 그리고 測定問題에 대한 先行研究를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문헌을 分析해 본結果, 家族主義價值만을 獨립적으로 研究한 문헌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家族主義價值의 概念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家族價值觀에 대한 研究를 考察하도록 한다.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p.5, pp.17~18에서 가치는 영속적인 신념으로서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실재를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치는 특정한 종류의 단일 신념이며 개인의 인성형성과 인지체계에 보다 더 중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家族價值觀에 대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 까지의 研究傾向을 보면 傳統的인 家族價值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거나 또는 변화하고는 있으나 그 本質은 변하지 않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은 하고<sup>10)</sup>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家族價值觀에 관한 研究의 내용 및 研究方法에 대해서는 結婚하기 전까지, 즉 配偶者選擇 및 結婚觀에 관한 研究와 家族을 形成한 후의 家族關係에 대한 價值觀에 관한 研究로 나누어서 考察된 바 있다. 즉 1970년대 국내에서 발표된 論文의 研究傾向을 分析한 것<sup>11)</sup>과 1977년부터 1983년까지의 国내외 研究傾向을 分析한 것<sup>12)</sup>이 있다.

家族價值觀에 관한 研究 중에서 價值觀의 傳統性과 近代性에 關한 研究傾向은 다음과 같다. 配偶者選擇 및 結婚觀에 關한 研究에서는 結婚過程에 대한 것으로 配偶者의 條件, 結婚時期, 家族計劃 등에 대한 態度가 研究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되는 變數로는 性別, 年齡, 教育程度, 社會經濟的地位, 職業, 父의 出生順位, 家族形態, 地域 등의 客觀的 變數와의 關係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 大부분이고 主觀的 變數로는 父母의 家族生活滿足度\*\*를 측정한 것이 있을 뿐이다.

研究結果를 보면 配偶者決定에 대한 態度, 性觀, 職業觀 등이 傳統的 結婚觀에서 많이 변화하였다<sup>13)</sup>는가, 대학생의 家族에 대한 價值觀은 現代的 思考의 관념을 지향하면서도 傳統的인 價值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적인 태도에서 점차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sup>14)</sup>고 한다. 또한 여대생의 家族意識은 합리적인 경향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일부 傳統性에 대해서는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5)</sup>고 하여 價值觀이 傳統性에서 상당히 變化하였다라고 보는 입장과 부분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는 傳統性을 보이고 있다는 見解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劉永珠<sup>16)</sup>는 韓國家族에 있어서의 結婚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제시하

\*\*曹圭淵, “우리나라 未婚男女의 結婚觀에 대한 研究”,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0)에서 結婚 상대방의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에 대한 태도를 보았는데, 연구 결과 부모의 별거는 상대방을 문제 가족 출신으로 본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고 있다. 즉 結婚觀에서는 近代的 傾向이 높은데 이는 傳統的 態度와 近代的 態度의 혼동이 아니라 극히 일부층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近代的 態度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男女平等, 男女差異에 대해서는 철저한 傳統的, 儒教의 價值觀을 나타낸다고 한다. 반면에 젊은 여성들은 結婚의 必要性에 대하여 살아갈 능력만 있다면 結婚할 필요가 없다는 거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曹英淑<sup>18)</sup>, 曹圭淵<sup>19)</sup>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여성의 結婚觀에는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結婚後의 媳父母同居問題나 配偶者決定時 父母의 反對意見의 존중문제에는 傳統的인 우리 家族의 美風을 빌어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配偶者選擇 및 結婚觀에서 近代性이 두드러지면서도 부분적으로는 傳統性, 특히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공경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한편 家族關係에 대한 價值觀研究는 夫婦에 대한 價值觀, 父母에 대한 價值觀, 子女에 대한 價值觀의 내용에 대해서 傳統性과 近代性을 규명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價值觀은 그 내용의 傳統性 여부에 일관성이 없이 내면적으로는 傳統性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외면적으로는 近代의 慎重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家族關係에 대한 價值觀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夫婦關係, 父母子女關係以外에도 兄弟關係, 親戚關係 등이 포함되며, 삶에 대한 기대, 가정분위기<sup>20)</sup>, 경제, 가사노동, 家禮, 여가<sup>21)</sup>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되는 變數도 앞의 配偶者選擇 및 結婚觀研究에서와 같이 客觀的 變數가 대부분이다.

研究結果를 보면 研究者마다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相異한結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영역에 대한 研究結果 역시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朴仁德<sup>22)</sup>은 父母의 子女에 대한 價值觀은 상당히 변화해서 父子中心家族에서 夫婦中心家族으로 변하고 父母子女關係는 民主的이라고 한다. 그러나 男兒選好思想은 관념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면서 養育, 教育 등에서는 아들, 딸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경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世代간의 關係는 媳家center이라고 보다는 兩家center이라고

하면서 祖上崇拜에 대한 價值觀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傳統的인 價值觀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研究 안에서도 價值觀의 傳統性과 近代性이 共存하고 있는結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金明子<sup>23)</sup>, 박우인<sup>24)</sup>의 研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前者は 전반적으로 상당히 近代的인 理念의 경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後者は 전반적인 價值意識은 傳統性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영역별 차이를 보고하고는 있으나, 이는 학자마다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傳統的 價值를 추출해 낸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李千世<sup>25)</sup>와 金正植<sup>26)</sup>의 研究結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農民의 價值觀이 매우 傳統的이라고 보고되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近代性志向이라고도 한다. 한편 鄭顯姬<sup>27)</sup>는 家族價値觀은 전반적으로는 個人과 家族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 人間性回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 未來志向의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核家族은 個人中心의 核家族化보다는 차라리 家族主義를 택하는 경향으로 보아 西歐의 核家族과는 本質的으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高貞子<sup>28)</sup>도 未婚男性은合理的이고 個人主義의 지향을 보이고 있으면서 結婚, 家族計劃, 相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傳統的 價値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의 研究結果를 보면, 傳統的 價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家族中心의 價值를 보여주는 家族主義價値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家族主義價値를 표출하는 家族價値에 대한 測定을 하면 이제까지의 質向紙를 통한 자료분석에서는 미흡하였던 客觀的 變數에 따른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가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며, 더 나아가 主觀的 變數와의 關係分析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家族關係 研究<sup>29)</sup>에서 시도되고 있는 어떤 主觀的 變數를 설명하는데, 다른 主觀的 變數와 客觀的 變數들 중에서 어느 變數가 보다 더 설명력이 큰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 變數를 이용해서도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家族의 여러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尺度의 개발은 매우 활발하여 이와 같은 變數 간의 關係를 규명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變數 간의 관계 규명에 대한 關心에서 더욱 발전하여 理論과 測定간의 주의깊은 상호교류의 부족<sup>30)</sup>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家族價值觀을 測定하는 尺度의 수준이 최근의 研究<sup>31)</sup>에 이르기까지 命名尺度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家族에 대한 態度를 測定한 李妍珠<sup>32)</sup>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家族에 대한 態度의 영역이 다양하게 세분되어, 단일 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에 곤란하다.

家族價值觀에 관한 외국의 최근 研究傾向은 일 반적으로 比較文化研究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 Ware<sup>33)</sup>는 一夫多妻制가 보편적인 나이지리아에서는 教育을 받지 못한 婦人은 一夫多妻에 대해서 긍정적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Harris<sup>34)</sup>는 家族主義와 性役割志向에 대해서 멕시코계 미국 여성과 영국계 미국 여성 두 집단을 3세대에 걸쳐서 研究한結果, 家族主義와 性役割志向의 정도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크고, 世代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민족은 전체 대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주는 要因으로 나타났으나 딸 세대에서는 家族主義 면에서 민족 변수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教育과 社會經濟的 地位의 차이가 감소될 경우 家族志向에 대한 민족간의 차이는 감소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Bengtson<sup>35)</sup>은 集合主義와 個人主義價值는 世代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社會의 變化가 급격한 가운데 地域別, 階層別, 世代別 家族價值觀의 격차가 상당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傳統的 家族價值觀을 이루고 있는 概念 중에서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를 測定하여 이러한 문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家族價值觀을 측정하는 道具는 대부분이 質問紙<sup>36)</sup>임에도 불구하고, 質問紙法에서 사용하는 尺度를 정교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약한 실태이다. 본 연구의 尺度作成에 참고로 한 Heller의 家族主義尺度는 李妍珠<sup>37)</sup>가 核家族에 해당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韓國家族에 적합하도록 수정하

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尺度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는 文化간의 差異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情報를 수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文化에서 나타나는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를 測定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제까지 사용된 家族價值觀을 측정한 問項과 外國의 問項을 합하여 問項分析을 하여 尺度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調査對象

본 조사대상은 學童期 子女를 둔 父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本研究가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를 측정할 尺度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의 家族關係가 다양하여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學童期 子女의 父母는 그들의 子女와 父母子女關係를 가지며, 人口統計에 의하면 成人子女로서 老父母와의 關係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弟兄姊妹도 結婚을 한 경우가 많은 時期인 것이다. 그러므로 本 尺度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경험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이것이 本 尺度의 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妥當度 檢查에서도 의미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공립국민학교 2개교에서 표집되었다. 質問紙는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한 학생에게 아버지용 또는 어머니용 1부만을 배부하였다. 학생이 부모에게 質問紙를 전달하면 부모가 직접 기입한 후 다시 학생이 학교로 가져와서 제출하는 방법을택하였다. 調査目的과 質問紙 기입 방법은 質問紙의 1면과 2면에 상세히 기록하여 이해를 돋도록 하였다.

質問紙는 아버지용 274부, 어머니용 232부를 배부하여 총 506부를 배부하였는데 아버지용 262부, 어머니용 211부가 회수되어 총 473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473부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과 缺損家族인 경우를 제외한 44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성 별	남	56.7 <sup>+</sup>
	여	43.3
연 령		39.9세
교육경도	국졸 이하	7.8
	중졸	25.8
	고졸	40.8
	대학 이상	25.5
직 업	전문관리 직	11.3
	사무직	18.1
	생산판매 직	27.2
	서비스직	8.7
	기 타	34.7
종 교	무	36.0
	기독교	21.7
	천주교	8.5
	불교	31.6
	유교	0.7
월평균 수입		53만원
평균 자녀수		2.7명
평균 가족수		4.9명
가족 소득원	1인	82.2
	2인	15.7
가족 형태	핵 가족	81.6
	부계 3세대	16.0
	모계 3세대	1.2
가족생활주기	학동기자녀기	56.1
	10대 자녀기	41.2
결혼지속 연수		14.5년
가장의	장남	34.7
형제 순위	차남 이하	52.0
	독자	13.3
응답자의 성장지 배경 <sup>++</sup>		
	도시	37.1
	농촌	62.7

<sup>+</sup>숫자에 단위가 없는 것은 백분율임.

<sup>++</sup>성장지 배경이란 응답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지역 배경임. 즉 본인이 도시 출신이라고 지각하는지, 농촌 출신이라고 지각하는지를 구분한 것임.

\*무응답 사례가 있으므로 각 항의 백분율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아버지용 質問紙와 어머니용 質問紙의 내용은 동일하나, 남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質問紙 표지에 「아버지용」, 「어머니용」으로 표기를 하여 배부하였다.

分析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 2. 测定道具

本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尺度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質問紙는 이제까지 발표된 家族價值觀 研究에서 대부분이 命名尺度로 된 問項을 기본으로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일 반적 으로 態度尺度는 리커트 척도를 많이 쓰며<sup>38)</sup>, “대단히 찬성”부터 “대단히 반대”的 5점 척도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sup>39)</sup>이기 때문이다. 5점 리커트 척도는 대단히 찬성 5점, 약간 찬성 4점, 찬반 미정 3점, 약간 반대 2점, 대단히 반대 1점이다. 問項 중에서 家族主義에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문항은 반대로 겹수를 주어서 대단히 찬성 1점, 약간 찬성 2점, 찬반 미정 3점, 약간 반대 4점, 대단히 반대 5점이다. 그레므로 전체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家族主義가 높은 態度이며 총점이 낮을수록 家族主義가 낮은 態度이다.

道具構成過程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家族價值觀 研究에 사용된 問項과 Heller<sup>40)</sup>의 家族主義尺度를 가지고, 本 尺度에 반영하고자 하는 家族主義의 다섯가지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問項을 우선 선정<sup>\*</sup>하였다. 1차 문항선정 과정에서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한번 이상 사용된 問項은 모두 선택하였으며, 둘째로 유사한 問項은 통합하였고, 셋째로 용어의 통일 및 표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問項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리하여構成된 質問紙는 세 부분으로 작성되었는데, 즉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를 측정하는 질문 50問項과 尺度의 妥當度 檢查를 위한 質問 2問項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한 질문 22問項으로 전체 問項數는 74問項

\*1차 문항 선정은 家族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는 전문가 4人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問項을 선정하였음.

이다. 이렇게 구성된 총 74問項의 質問紙를 응답하는 데는 약 25~30分이 소요되었다.

本研究에서는 다음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의 다섯가지 측면을 반영하도록 尺度를構成하였다.

- ① 父系 中心의 孝와 祖上崇拜에 대한 지지
- ② 家族構成員 各者가 家族集團에 속해 있다고 두드러지게 느끼는 정도
- ③ 家族의 目標를 성취하기 위해서 個人의 活動을 家族活動에 우선적으로 통합
- ④ 토지, 금전 등의 재화를 家族資產이라고 가정하고 個別家族構成員에 대하여 經濟的 支援 및 助力提供義務에 대한 지지
- ⑤ 父母와 結婚한子女, 그리고 成人兄弟姉妹간의 精神的, 社會的相互助力

以上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①은 대부분의 國內研究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며, ②부터 ④는 Burgess 와 Locke<sup>41)</sup>가 제시한 다섯 측면 중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 측면을 선택한 것이고 ⑤는 Heller<sup>42)</sup>가 제시한 것이다. 이상 상호 증복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家族主義價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섯 측면으로 本質問紙를 구성하였다.

### 3. 資料의 分析方法

資料의 分析은 調査對象者の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으며, 尺度의 問項을 선정하기 위해서 問項分析法을 적용하였다. 妥當度는 妥當度 檢查를 위한 問項과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 점수와의 관계를 分散分析을 적용하여 보았으며, 信賴度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內的一慣性을 측정하였다.

以上の統計分析은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SPS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IV. 研究 結果

### 1. 問項選定

수집된 資料를 分析하여 問項을 선정한 過程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 2〉 선정된 13문항의 중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의 변화—

순위	문항번호	R <sup>2</sup>	R <sup>2</sup> change
(1)	3	0.43915	0.43915
(2)	5	0.58951	0.15036
(3)	13	0.66866	0.07915
(4)	9	0.73301	0.06436
(5)	10	0.77303	0.04002
(6)	12	0.80777	0.03474
(7)	8	0.83638	0.02860
(8)	11	0.85806	0.02169
(9)	1	0.87506	0.01700
(10)	4	0.88953	0.01447
(11)	2	0.90357	0.01404
(12)	6	0.91413	0.01056
(13)	7	0.92475	0.01063

리커트척도에서 각 問項의 총점으로 측정되는 특성을 测定하는 능력을 評價하는 데는 두가지의 問項分析方法이 있다<sup>43)</sup>. 그것은 상관관계 분석과 내적 일관성의 준거에 의한 분석이다.

제 1 단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尺度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인 문항 30개를 추출하였다. 이 30문항을 중회귀 분석하여 설명력(R<sup>2</sup>)이 높은 순서대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설명력의 변화(R<sup>2</sup>change)가 1%인 문항까지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13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3문항의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尺度는 중회귀분석에 사용된 30문항으로 구성된 중간척도의 家族主義를 92.5% 설명해 준다(표 2).

本過程에서 선정된 尺度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제 2 단계에서는 內的一慣性의 준거에 근거한 방법으로 각 문항의 판별력을 산출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尺度點數 順으로 4집단으로 나누었더니 집단 1은 26%, 집단 2는 25%, 집단 3은 26%, 집단 4는 23%가 되었다. 집단의 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점을 받은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집단 1과 집단 4의 尺度點數를 t검증하여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3문

〈표 3〉 척도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관계

문항번호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1	0.28077
2	0.25634
3	0.47987
4	0.41456
5	0.47951
6	0.35963
7	0.41311
8	0.35476
9	0.40450
10	0.37622
11	0.31828
12	0.39615
13	0.41908

〈표 4〉 문항의 판별력 (DP, CR)

문항 번호	DP*	CR**
1	1.23	7.85
2	1.40	8.06
3	2.18	15.24
4	1.79	11.37
5	2.01	13.75
6	1.66	9.78
7	1.81	12.05
8	1.29	8.57
9	1.74	11.56
10	1.56	9.75
11	1.24	8.67
12	1.98	12.22
13	2.11	13.50

\*DP (Discriminatory Power)

\*\*CR (Critical Ratio)

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판별력(DP)과 CR(critical ratio)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13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각尺度問項의 끝에 있는 팔호안의 번호는 그問項이 반영하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한態度의 측면이다.

1.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

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⑧)

2. 자신이 가지려는 직업에 대해서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한다. (③)

3. 자식을 낳는 중요한 이유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①)

4. 장남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⑤)

5.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의 논란 후에 실행해야 한다. (⑤)

6. 만약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자식이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 (④)

7. 분가해서 살 경우 친정(처) 부모보다 시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 (①)

8. 결혼 배우자는 부모가 정해 준대로 따라야 한다. (③)

9.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정(처가)쪽 보다는 시가쪽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④)

10. 자식을 낳고 키우는 문제는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가문 전체의 일이다. (①)

11.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곤란한 이웃이나 친구보다 곤란한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다. (④)

12. 조상의 제사를 4대조(고조부모)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①)

13.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③)

이상 13問項이 반영하고 있는 측면을 고찰한結果, “②家族構成員 各者가 自身이 家族集團에 속해 있다고 두드러지게 느끼는 정도” 측면을 반영하는 문항이 한 문항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는 Burgess 와 Locke<sup>44)</sup>, 그리고 Heller<sup>45)</sup>의 問項을 번역하여 측면 ②문항을 구성하였는데 문항이 반영하는 내용이 우리의 家族主義를 나타내 주는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측면 “①父系中心의 孝와 祖上崇拜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態度를 반영하는 問項이 몇이나 선정된 것으로 보아 이것이 바로 家族主義를 설명하는 文化 간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信賴度와妥當度

本尺度의 信賴度는 Cronbach의  $\alpha$  계수로 内的一貫性을 측정하였다. 13문항으로 산출한  $\alpha$  계수는 .759로 나타나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尺度라고 볼 수 있다.

本尺度의 妥當度 檢查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內容妥當度를 論理的妥當化와 關係者意見法<sup>46)</sup>으로 검증하였다.

論理的妥當化는 尺度의 問項을 상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기본문항표 선정과정에서 시행되었으며 關係者意見法은 家族學分野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4명의 論理의 판단에 의거하여 本尺度가 반영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측면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問項인지를 판정받았다. 그리고 本調查對象者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既婚男女各 5名씩 10名에게 기본문항표를 제시하고 표현의 부적합함이나 질문의 난해함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받았다. 그리하여 중간문항 선정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문항은 제외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妥當度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과 尺度點數를 分散分析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거주지 선택시 부모 방문 횟수 고려”와 “삼촌 이상 친척 방문 횟수”의 두 문항인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방문 횟수가 보다 더 빈번한 것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한다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尺度點數가 높다( $p<.001$ ). 급간간의 차이를 Scheffé test 해본 결과, 부모를 매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자 하는 집단과 부모와의 접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집단 간에 서면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p<.05$ ). 또한 삼촌 이상의 친척 방문 횟수를 보면 <표 6>에서와 같이 1년에 방문하는 횟수가 빈번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尺度點數가 높다( $p<.01$ ). 이와 같이 家族主義를 나타내는 變數로 선택된 두 개의 獨立變數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와 의미 있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本

<표 5> 거주지 선택시 부모 방문 횟수 고려와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태도 점수

거주지 선택 고려	N	태도점수
부모를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곳	110	37.25*
부모를 매주 말 볼 수 있는 곳	84	35.23
부모를 매월 볼 수 있는 곳	97	34.86
부모와의 접촉은 문제가 되지 않음	110	32.83*

$$F=5.202 \quad p<.01$$

\*Scheffé test 결과 이 두 집단간 차이가 의미 있음.  $p<.05$

<표 6> 삼촌 이상 친척 방문 횟수와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태도 점수

방문 횟수	N	태도점수
1년에 1회 정도	21	32.52
1년에 2~3회	52	31.94
1년에 4~5회	32	36.90
1년에 6회 이상	50	36.72

$$F=3.871 \quad p<.01$$

尺度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尺度로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 V. 結論 및 提言

本研究에서 나타난 結果를 要約함으로써 結論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先行 關聯研究를 考察한 結果를 보면, 家族主義價値는 家族價値觀의 傳統性을 나타내 주는 核心的價値이며, 보다 進步된 研究를 수행하려면 尺度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2. 問項分析法에 의하여 13개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態度를 측정하는 問項을 선정하였다. 1단계로 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 과정을 거쳐 13問項을 선정한 후 内的一貫性 준거에 의한 方法으로 問項의 可靠性를 검증한 結果 13問項 모두 유의한 結果가 나왔다.

3. 信賴度는 問項의 内的一貫性을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  계수가 .759로 나와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信賴度係數를 보이고 있다.

妥當度는 内容妥當度와 選定된 獨立變數로 檢증 했다. 内容妥當度는 問項選定時에 論理의 妥當化와 關係者 意見法으로 檢증하였으며, 問項選定 후에는 獨自의 基準에 의하여 獨立變數를 選定하여 分散分析을 한 結果, 本 尺度가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를 측정하는데 妥當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結果로써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尺度를 제시하고자 한 本 研究의 目的是 달성되었다. 本 研究에서 선정된 13問項으로 구성된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態度尺度는 약칭하여 家族主義尺度라고 하고자 한다.

그러나 本 연구에서는 서울의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本 尺度를 成人 일 반에게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표집에서 제외된 家族生活週期의 다른 단계 및 다양한 社會階層을 대상으로 하여 尺度의 타당화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그리하여 家族主義尺度가 정교하게 구성되면 家族主義와 家族關係의 여러 측면에 대한 態度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家族主義와 性役割態度, 家族主義와 結婚滿足度 등을 다양한 客觀的 變數와 관련시켜서 考察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傳統的 價值와 家族關係 分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變數 간의 관계를 규명하게 되면, 이는 家族關係의 質을 파악하고 家族關係의 質의 向上의 方案을 강구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 參 考 文 獻

- 大韓家政學會編, 「家政學研究의 最新情報, 兒童學·家族關係」(서울: 新光出版社, 1984), p. 91.
- 李妍珠, “韓國家族의 變化에 관한 일 연구—태도조사를 통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1984. 12), pp. 101~112.
- Harris, Richard J.,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Generation on Familism and Sex Role Orientation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XI, No. 2 (Spring 1980), pp. 173~193.
- Heller, Peter L., “Familism Scale-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No. 1 (February 1970), p. 73.
- Ibid.*
- 崔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서울: 開文社, 1979), p. 23.
- Rokeach, Milton,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IX.
- Ibid.*, p. 4.
- Ibid.*, p. 18.
- Ibid.*
- 玉先花, “家族關係에 對한 價值意識의 傳統性과 近代性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4호(1975. 12), p. 143.
- 廷珍泳 外 8人, 「家庭管理學 研究方法論」(서울: 大學教材出版社, 1983), pp. 297~306.
- 大韓家政學會編, 「앞의 책」, pp. 91~99.
- 玉亮鍊, “韓國未婚女性의 結婚觀—釜山市內銀行 女性을 對象으로—”, 「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 論文集, 인문·사회」 제16집(1977), pp. 511~524.
- 文惠淑, “理想的인 家族觀에 關한 研究—男女大學生을 中心으로—”,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8).
- 高貞子, “女大生의 家族意識에 關한 考察—釜山地域을 中心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제17권 2호 (1979. 6), pp. 57~81.
- 劉永珠, “韓國家族에 있어서의 結婚 研究—現代人의 結婚觀 調查를 中心으로”, 「仁荷大學校 附設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第2輯(1976. 2), pp. 127~150.
- 曹英淑, “專門大學 女學生의 結婚觀에 對한 調查研究”, 「순천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1980), pp. 311~332.
- 曹圭淵, “우리나라 未婚男女의 結婚觀에 대한 研究”,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전국대학교 대학원, 1980).

20. 李貞玕, “韓國都市女性의 價值觀研究”, 「亞細亞女性研究」第18輯(1978).
21. 朴仁德, “韓國家庭生活의 價值觀에 關한 研究”, (未刊行 博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22. *Ibid.*
23. 金明子, “家族關係에 대한 主婦의 價值意識變容에 대한 研究—江原道 東海岸 地域을 중심으로”, 「關東大學論文集」第8輯(1980), pp. 453~470.
24. 박우인, “主婦의 家族意識에 關한 研究—順天市 主婦를 對象으로”, 「순천농업전문대학 논문집」제17집(1980), pp.433~459.
25. 李千世, “家族關係에서의 價值觀”, 「안동대학 논문집」제 2집(1980), pp.65~74.
26. 金正植, “韓國農民의 家族價值觀 變化에 關한 比較研究—1959년과 1981년을 中心으로”,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
27. 鄭顯姬, “時間的 次元에서 본 家族의 價值觀 研究”,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28. 高貞子, “未婚男性의 家族意識에 關한 考察”, 「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 1권 2호 (1983.12), pp.89~106.
29. Yoge, Sara and Jeanne Brett,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7, No. 3 (August 1985), pp.609~618.
30. Schumm, Walter R., “Integrating Theory, Measurement and Data Analysis on Family Studies Surve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4, No. 4 (November 1982), pp.983~998.
31. 朴鎮淑, “大學生의 家族意識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3호 (1984.9), pp. 129~148.
32. 李妍珠, “앎의 글”, (1984).
33. Ware, Helen, “Polygyny: Women's Views in a Transitional Society, Nigeria 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No. 1 (February 1979), pp.185~195.
34. Harris, *op. cit.* pp.181~189.
35. Bengtson, Vern L.,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0 (June 1975), pp.358~371.
36. 鄭珍泳外 8人, 「앎의 책」, pp.333~334.
37. 李妍珠, “青少年의 家族에 대한 態度와 自我正體感과의 關係”, (未刊行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0).
38. Rokeach, *op. cit.*, p.17.
39. Carmines, Edward G. and Richard A. Zeller,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1979), pp.22~23.
40. Heller, Peter, “Familism Scale: Revalidation and Rev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3 (August 1976), pp.423~429.
41. Heller, *op. cit.* (1970), p.74.
42. *Ibid.*
43. McIver, John P. and Edward G. Carmines, *Unidimensional Scaling*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1981), p. 24.
44. Heller, *op. cit.* (1970), p.74.
45. Heller, *op. cit.* (1976), p.428.
46. 李萬甲, 韓完相, 金暉東, 「社會調查方法論」(서울: 進明出版社, 1979), pp.221~222.